



3년

"시민공천배심원 경선하자"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 (음 11월 3일) 제3406호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전북도, '전국 최우수'

행안부장관 기관표창... 시상금으로 특교세 3억 지원받아 김 지사 정부에 대청담 방류량 축소 건의로 인명피해 막아도, 피해복구 지원 요구로 6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군·경찰·소방 등과 협력체계 구축... 인명피해 제로 실현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추진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17개 시·도와 16개 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우수지자체 평가에서, 전북도는 사전대비 실행,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재난 대응조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행정안전부장관 기관표창과 시상금으로 특교세 3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전북도는 올해 점차 대형화되는 자연재난에 대비해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도, 유관기관,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24시간 비상근무 시행, 인명피해 우려지역(382개소) 사전대비 훈련, 선제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 빈틈없는 사전대비와 대응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올해

단 한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한, 장마기간 기록적인 집중호우에 대응해 부단체장 중심의 보고체계 가동, 지하차도(20개), 하상도로(17개), 탐방로(10개공원, 133개) 등 주요시설의 사전차단 및 통제, 산사태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의 선제적 주민대피(14개 시군, 1,508명) 등 체계적인 대응과 발빠른 현장조치로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지킬 수 있었다.

특히, 7월 집중호우 시 익산 용안면 산복천 제방붕괴가 우려되자, 김관영 도지사가 호우대책 회의 중 국무총리와 중앙부처에 상류 대청담 방류량 축소를 적극 건의했고, 이에 화답해 환경부에서 대청담 방류량을 축소해 제방붕괴를 미연에 방지, 주민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더불어, 김관영 도지사 등 지휘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현장에서 국무총리와 중앙부처에 신속한 복구지원을 요청해 익산과 김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사전 선포됐으며, 중앙합동피해 조사시에도 조사단에 피해현황을 빠짐없이 설명하고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해 군산, 익산 등 7개 시군이 우심지역(국비지원), 김제, 완주 등 6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959억원의 국비와 재난안전특교세 210억원을 추가확보해 지방비 부담을 덜고 피해 도민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었다.

전북도는 2022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장려기관에 이어, 이번에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 명실상부한 자연재난 대응 선도지역으로 그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와 군,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시군이 선제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투철한 희생정신으로 한발 먼저 행동했고, 여기에 도민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더해져 영광스러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도 도민과 함께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피해 제로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14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가예산확보 워룸(War-room) 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 부지사, 실·국장 등 지휘부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기재부에서 검토중인 증액 제기 사업에 대한 관계자 면담결과 등 실국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 촘촘한 대응방안 모색

김관영 도지사, 워룸 회의 열고 최종 상황 점검 나서

전북도가 14일 국가예산확보 워룸(War-room) 회의를 개최해 최종 상황 점검에 나섰다.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양 부지사, 실·국장 등 지휘부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일 워룸회의 이후 현재 기재부에서 검토중인 증액제기 사업에 대해 관계자 면담결과 등 실국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촘촘히 살폈다.

김 지사는 "이번주 월요일 임시국회가 개최돼 오는 2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여야가 협의중이다"며 "앞으로 일주일도 남지 않은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 김 지사는 그동안 끈기 있게 여야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등을 만나 새만금 예산 등 전북예산 복원을 설득해 왔다.

전북도는 예산안이 최종 의결될 때까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전북도의 역량을 총동원해 정치권, 기재부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설득하며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완주군,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전북 최초... 안전 민원환경 등서 높은 평가 받아

완주군이 전북 최초로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받았다.

14일 완주군은 유희대 완주군수, 조영식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등 주요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관실을 열고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을 축하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교육청, 특별지방행정기관 등 민원실을 운영하는 총

1,516개 공공기관의 내외부 공간, 민원서비스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행정안전부에서 우수기관 지위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완주군은 군민 중심의 민원실 운영을 위해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 편의를 위한 민원실 접근성 향상과 편의시설 확충, 친절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개선해왔다.

특히, 비상벨 운영 등 안전한 민원



14일 열린 완주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증 현상식.

환경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0년 신규 인증 이후 재인증 평가를 통해 2020년까지 우수기관으로서의 지위가 연장됐다. /완주=염재복 기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장실습 지원...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 가동

도교육청, 첫 협의회 열고 장애학생 진로직업 발전방안 모색

전북도교육청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현장실습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를 본격 가동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14일 6층 위원회실에서 첫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장애학생의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가 원스톱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특히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원스톱 현장실습 지원 체계 구축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열린 협의회에는 임대섭 유초 등특수교육과장, 채정희 특수교육담당 장학관, 전주·군산·익산교육지원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특수학교(급) 교원과 전라북도장애인종합지원센터, 전주시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전북지사, 전북도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 17명이 참석했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현장교원,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현장실습이 활성화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현장실습 현황을 공유하고,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